

Start With IBKS

2012. 09. 19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수급]

KOSPI	2,004.96 (+0.13%)
KOSDAQ	523.52 (+0.87%)
KOSPI200	264.25 (+0.11%)
고객예탁금	18조 4,518억원
신용잔고	4조 864억원
국내 주식형 펀드	69조 4,896원
원/달러 환율	1,118.30원 (+2.30원)
국고채3년	2.86% (-0.04P)
CD(91일)	3.14% (-0.01P)
12개월 예상 PER*	9.49배
PBR(2012.1Q기준)*	1.28배
배당수익률*	2.61%
'13년 순이익 증가율*	21.36%

* KOSPI200 컨센서스 기준

Quantwise

- ✓ **IBKS Daily 추천 종목**
인포뱅크, 삼성물산, CJ대한통운, 케이피에프, 바텍, 나노스, 풍산, KH바텍
- ✓ **IBKS Monthly 추천 종목 (9월)**
삼성전자, 기아차, LG 디스플레이, 고려아연, GS 오리온, LS, 파라다이스, 오스템임플란트
- ✓ **전일 미 금융시장 마감상황 및 금일전망**
- ✓ **시장분석:**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수급
- ✓ **전일 수급 동향**
- ✓ **전일 수급 특징주 및 차트 관심주**
- ✓ **시장 동향**
펀드, 파생, 해외증시, Global peer, 환율 및 해외 금리, 원자재, 채권
- ✓ **주요 일정**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Midnight News]

- 더들리(뉴욕 연은 총재), QE3는 극도로 둔화된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에반스(시카고 연은 총재), QE3는 재정절벽 등 거대한 리스크 극복에 도움될 것
- 기도 만테가(브라질 재무장관), QE3 조치는 이머징 국가 경제성장에 해를 입힐 것
- 스페인 45.7억유로 규모 단기 국채발행 성공, 낙찰금리는 다소 낮아져
- 미국 9월 NAHB주택시장지수 40 기록해 예상치(38) 상회, 2006년 6월 이후 최고
- 미국 7월 해외 자본유입 670억달러 기록해 예상치(275) 및 이전치(93) 상회
- 미국 2분기 경상수지 1,174억달러 적자 기록해 예상치(-1,250) 상회
- S&P, 미국 뉴저지주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 에서 ‘부정적’으로 강등
- 독일 ZEW투자신뢰지수 -18.2 기록해 예상치(-20) 상회, 5개월만에 반등
- 역외 선물환율(원/달러 기준), IMF 매수기준 1,120.51원(+2.21원, 전일 증가 대비)
- DXY(달러화지수), 79.202P(+0.192P).
- VIX, 14.18%(-0.41%P)
-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8083%(-0.0332%P)

[미국 마감 사항]

- 전일 유럽증시는 스페인의 단기 국채발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국채 매입 재개 지원 요청 지연으로 불안 가중되며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요증시는 주택지표가 호조를 나타냈지만 이틀째 혼조세 보이며 보합권 마감. 페덱스가 실적 가이던스 하향으로 3%대 하락한 가운데 애플이 사상 처음으로 \$700선에 진입하면서 기술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나 에너지 및 금융업종은 상대적 부진한 모습. WTI가 이틀째 하락하며 지난주말 배럴당 \$99 기록한 이후 \$95선까지 내렸고 변동성지수(VIX)가 소폭 하락한 가운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소 낮아진 1.80% 기록

[전망 및 전략]

- 국내증시는 이벤트 소멸 후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가 지속되며 보합권내 등락 전망.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으로 전망되지만 주식형펀드 환매로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 쪽 매물 출회되며 지수의 추가 상승 제한할 것으로 예상.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로 리스크 완화와 경기회복 기대가 일시에 증시에 반영된 가운데 시장은 이제 서베이 지표 등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여부 확인할 것으로 판단. 월 말월초 예정돼 있는 서베이 지표 등이 시장의 단기 방향 결정할 수 있어 주목 필요

[펀드 동향]

- 국내주식형(ETF제외)펀드 -5,971억원
- 해외주식형(ETF제외)펀드 +133억원 (9/17일 기준)
- 국내주식형펀드 주식편입비 94.94% 전일대비 0.11%P 증가

[파생시장 동향]

- 야간선물 266.00P(-0.08%)
- 평균베이스스 +2.05P(이론베이스스 +1.98P)
- 차익 +1,170억원, 비차익 +285억원(외인 차익 -4억원, 비차익 +518억원)
- VKOSPI, 18.04%(+0.01%P)

[외환시장 동향]

- 전일 원/달러 환율은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인 가운데 일본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로 소폭 하락(1,118.30원, +2.30원)

Market Issue

Strategist 박옥희
02.6915.5672
marble@ibks.com

국가신용등급과 외국인 수급

<Summary>

-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일제히 한국 신용등급 상향. 북한 리스크 약화, 상대적 양호한 펀더멘털 등 이유
- 과거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되며 증시 추세적으로 상승했지만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 보이지는 않아
- 외국인 국내증시 순매수, 금융위기 이전에는 등급 조정에 따른 영향 없었지만 이후에는 일정 부문 영향
- 무디스와 피치의 등급 상향일에 외국인 한국증시 보유비중 저점 찍고 단기 반등한 가운데 비중확대중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증시에 영향 있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가 연이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긍정적 영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과 외국인 수급이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등급 조정이 일정 부문 영향을 주면서 외국인 순매수를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로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등급 상향은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이유 ‘북한 리스크 약화, 상대적 양호한 펀더멘털’ 등

무디스, 피치, S&P 등
주요 3대 국제 신평가사
일제히 한국 신용등급 상향

지난 8월말 무디스에 이어 9월 들어 피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까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씩 상향 조정했다. 주요 이유는 최근 불안한 글로벌 경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재정 등 부문이 양호하고, 북한의 정권 이양이 별 무리 없이 진행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표 1. 국제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상황(2005년 이후)

신용평가사	상향 조정일	신용등급
S&P	2005년 7월 27일	A로 상향
피치	2005년 9월 19일	A로 유지. 상향조정 검토 대상
피치	2005년 10월 24일	A+로 상향
무디스	2007년 7월 3일	A3로 유지. 상향조정 검토 대상
무디스	2007년 7월 25일	A2로 상향
무디스	2010년 4월 14일	A1로 상향
무디스	2012년 8월 27일	Aa3로 상향
피치	2012년 9월 6일	AA-로 상향
S&P	2012년 9월 14일	A+로 상향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S&P 북한 리스크 약화를
특히 등급 상향 이유로 강조

먼저 신용등급을 가장 까다롭게 부여하고 있는 S&P는 지난 1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첫 상향 조정이다. 여타 국제 신평사와 달리 S&P는 북한 리스크 약화를 이번 등급 상향 조정 이유로 특히 강조했다. S&P는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가 3~5년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북한 정치가 불안해질 경우 등급을 다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둔화로 경제지표가 1~2년 동안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경기둔화 기간이 연장되면서 자산의 질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심각하게 압박을 받을 경우 등급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피치, 안정적인 경기와
강한 거시경제 정책 등 언급

피치는 S&P보다 빠른 지난 6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상향조정하면서 전망은 역시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피치가 등급을 상향한 주요 이유는 불안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기와 금융 부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강한 거시경제 정책 체계와 구조적 기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리스크는 여전히 있지만 'AA-' 등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무디스, 양호한 재정과 강한
경기회복력과 경쟁력 언급

주요 3대 국제 신평사 중 가장 먼저인 지난 8월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한 무디스는 양호한 재정 상황, 강한 경기 회복력과 경쟁력, 은행 부분의 대외 취약성 약화와 더불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여건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용등급 조정 영향,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

신용등급 조정과 증시 추이
밀접한 상관관계 보이지는
않아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가운데 KOSPI가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신용등급 조정과 증시 추이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외국인의 국내증시에 대한 순매수 동향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용등급 상향 여부와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일정 부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부여 변화와 KOSPI 추이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그림 2. S&P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부여 변화와 KOSPI 추이



자료: Bloomberg, IBK 투자증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국
신용등급 상황에도 외국인
순매도

금융위기 발발 이후
등급 상황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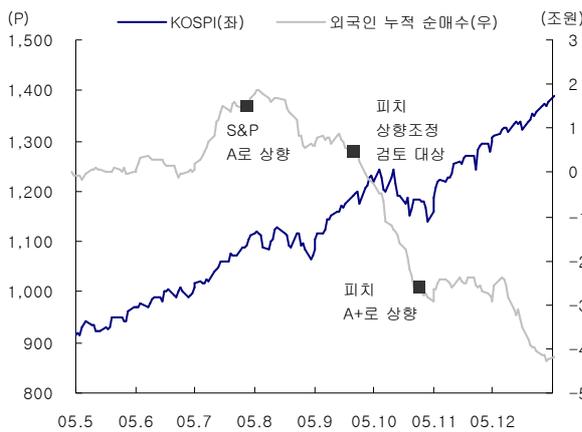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신평가들의
평가 태도 변화로 등급
조정이 금융시장에 영향
주는 것으로 판단

2005년 이후 3대 신평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을 때와 외국인 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S&P, 피치)과 2007년(무디스)에는 등급 상황에도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 상황에서 순매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황이 외국인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한 2010년에는 등급 상황을 앞두고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신평가들의 등급 평가가 현 상황 변화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등급 조정 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발발 당시 문제가 됐던 채권이 일부 신평가들로 최고 등급을 받고 있었던 만큼 신평가들의 등급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금융위기 발발 이후 신평가들이 등급을 하향하면서 뒷북을 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 신평가들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었다. 작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도 신평가들의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그림 3. 한국 신용등급 상황 전후 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2005년)



주: 외국인 2005년초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증권전산, IBK투자증권

그림 4. 한국 신용등급 상황 전후 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2007년)



주: 외국인 2005년초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증권전산, IBK투자증권

8월말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상향 앞두고 기대감 반영

이번에도 8월말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황을 앞두고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다. 이벤트 부재 속에 유럽 리스크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난 영향도 있었지만 외국인이 한국증시에서 특히 강하게 순매수한 것은 신용등급 상황의 기대도 일정 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3대 신평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연례협의를 개최하는데 올해 3대 신평가의 방한이 5~7월에 예정돼 있었던 만큼 신용등급 관련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한국증시 보유비중,
무디스와 피치 등급 상황
일에 저점 찍고 단기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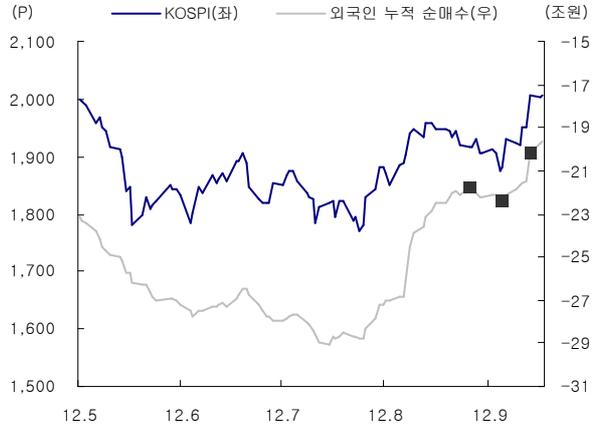
외국인의 한국증시 보유비중을 살펴보면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날을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했다는 것도 신용등급 상황이 외국인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림 5. 한국 신용등급 상향 전후 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2010년)



주: 외국인 2005 년초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증권전산, IBK 투자증권

그림 6. 이번 한국 신용등급 상향 전후 지수 및 외국인 순매수 추이



주: 외국인 2005 년초 이후 누적 순매수
 자료: 증권전산, IBK 투자증권

S&P 2007년 A 등급 이상
 부여국 47개국 →
 현재 23개국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이 글로벌 여타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외국인의 국내증시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07년 이후 S&P가 국가별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07년에만 해도 A 등급 이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가가 47개국이었지만 점차 감소하면서 2012년 9월 현재 23개국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한국증시에 대한
 선호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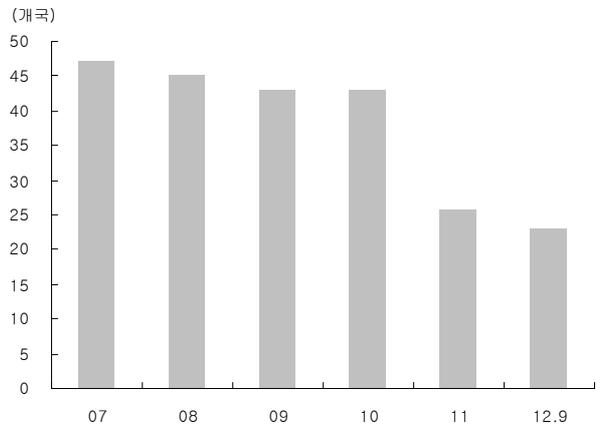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추가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미국계와 유럽계 자금의 국내증시로 유입이 전망되는데(지난 17일 발간된 Weekly Strategy 보고서인 “외국인이 노리는 한국” 참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은 외국인 투자심리에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7. 외국인 한국주식 보유비중 변화와 한국 신용등급 상향 시점



주: 시가총액 기준
 자료: 증권전산, IBK투자증권

그림 8. S&P가 신용등급을 'A' 이상으로 부여하고 있는 국가 수



자료: 기획재정부, IBK투자증권

IBKS Daily 추천 종목 수익률		KOSPI 수익률		KOSDAQ 수익률	
누적수익률['11.01.03~현재]	9월	누적	9월	누적	9월
36.33%	9.43%	-2.24%	5.24%	2.51%	2.98%

신규추천	없음
추천제외	없음

종목명	추천주가	추천일	현재주가	목표주가	현금비중 20%	
					수익률	벤치마크
인포뱅크 A039290	6,320원	06월 15일	11,250원	-	78.01%	1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방향 미디어서비스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의 문자투표를 독점 중인 업체 관련 프로그램 호조로 1분기 최대 실적 달성. 퀴즈쇼, 경매쇼 등 신규 프로그램을 통한 매출 발생 기대 소프트웨어 업체에도 불구하고 2012F P/E 6.7배(일회성 이익 제외), P/B 1.0배로 Valuation 매력 존재 						
삼성물산 A000830	67,400원	08월 09일	69,500원	-	3.12%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부문의 외형성장과 원가를 안정, 상사부문의 거래량 증가와 비용 부담 감소로 양호한 하반기 실적 기대 상사부문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 인력을 통해 차별화된 건설 수주 실적 이어갈 전망 삼성전자 등 지분가치는 약 11조원으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규제 관련 긍정적인 영향 기대 						
CJ대한통운 A000120	86,600원	08월 09일	91,000원	-	5.08%	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육상 물류 시장 1위 기업으로 하반기부터 CJ그룹 편입효과가 본격화될 전망. 2분기부터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택배부문 영업을 강화해 하반기 양호한 실적 기대 한국복합물류에서 신규 매출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자회사 실적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케이피에프 A024880	7,620원	08월 09일	9,600원	-	25.98%	1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스너와 자동차 베어링 사업부 영위. 2분기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품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사상최대 실적 달성.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품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 현재 수주잔고 800억원으로 하반기에도 호실적 지속 전망. 내년부터 베트남, 중국공장 Full 가동 기대 						
바텍 A043150	7,900원	08월 29일	8,580원	-	8.61%	4.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점유율 1위의 치과용 디지털 X-ray 장비 전문업체. 최근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시술이 확산되면서 X-ray는 물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된 복합 신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실적 개선 기대 이며정시장을 타겟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어 수출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기대 						
나노스 A151910	11,600원	09월 07일	14,100원	-	21.55%	3.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필터, 블루필터, 카메라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기, 파트론, 캄시스 등이며 삼성전자향 매출이 90% 이상 차지 블루필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공급사로 인해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 						
풍산 A103140	30,700원	09월 10일	35,300원	38,000원	14.98%	3.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확대를 통해 LF/도금재 등 고가재 비중 상승을 위해 노력 중. 일본 업계의 경쟁력 열화가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 2012년 하반기 별도 기준 예상치는 매출 1.18조원, 영업이익 790억원(OPM 7.0%) 						
KH바텍 A060720	9,000원	09월 17일	9,030원	-	0.33%	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핸드셋,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내외장재 및 조립모듈 생산 업체. 주력 고객사였던 Nokia의 몰락과 한지 시장 침체로 매출 감소되었으나, 최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 진행중 해외법인의 생산 안정화가 예상되는 4분기 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 						

- 벤치마크는 해당기업의 상장시장(KOSPI, KOSDAQ) 지수를 사용하며 추천주가는 신규편입일 전일의 종가임
- 목표주가는 당사가 커버하는 종목만 표시됨
- 나열은 편입일 순
- 누적수익률 산정 시점을 당초 2010년 10월 1일에서 2011년 1월 3일로 변경

9월 추천종목 수익률		BM	8월 추천종목 수익률		BM
단순 방식	5.18%	4.79%	단순 방식	3.76%	1.23%
가중 방식	6.39%		가중 방식	-3.50%	

종목명	전월종가	현재주가	목표주가	수익률	상승여력	벤치마크
삼성전자 A005930	1,233,000원	1,315,000원	1,650,000원	6.65%	25.48%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시스템LSI, AMOLED의 실적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은 매출 50조원대, 영업이익 7조원대로,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전망 상반기 부진했던 메모리도 재고조정을 거쳐 3분기 중후반 이후부터 점차 사이클 개선을 기대 경쟁사들 대비 압도적인 제품/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섹터 내 실적 가시성 및 안정성 가장 높음 					
기아차 A000270	74,100원	75,600원	100,000원	2.02%	32.28%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K3, Sorento F/L, K7 F/L, Carens, K5 F/L, Soul, SportageR F/L 등 신차모멘텀이 풍부해 생산능력 부족에 따른 볼륨증가율 둔화 영향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을 전망 극대화된 생산효율성으로 원가를 개선, 신차출시 지속으로 인한 ASP 상승효과, 판관비율 유지로 하반기와 내년 영업이익률의 추가개선이 가능할 전망 					
LG디스플레이 A034220	25,950원	28,900원	30,000원	11.37%	3.81%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반기 뉴아이패드 패널 출하량 증가, In-Cell TSP 장착된 아이폰5 양산, 고해상도 울트라북 패널 출시 등으로 동사의 고부가가치 패널 출하 비중은 60% 이상을 기록할 전망 6세대 고해상도 LTPS라인 전환투자(1.2조원) 및 8세대 OLED TV 전환투자로 고 수익성 제품 위주의 사업 업그레이드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 					
고려아연 A010130	409,000원	485,000원	460,000원	18.58%	-5.15%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미 달러 약세와 유로존 안정화로 상승한 금 가격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 은 가격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최근 비철금속과 귀금속 가격 변동에 민감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만 설비 능력 증강 및 고수익 구조 안착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 					
GS A078930	65,000원	69,100원	76,000원	6.31%	9.99%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계속적인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유가 강세를 예상한다면, 정유주에 대한 투자는 일단 매력적으로 판단 3분기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등에 따른 1) 원유 가격, 2) 정제 마진 상승에 힘입어 매출 2.7조원, 영업이익 2,726억원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오리온 A001800	920,000원	878,000원	1,100,000원	-4.57%	25.28%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과 3사 중 국내 매출성장률이 가장 높고 프리미엄 제과시장을 선점해 고수익구조를 확보했으며 해외사업 성장성이 뚜렷 하반기에는 역기저효과가 존재하고 마케팅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나, 1)국내외 신제품 출시와 2)제품가격 인상 가능성(파이/껌/캔디 등), 3)기타 비용 절감 등에 따라 실적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LS A006260	87,800원	95,000원	120,000원	8.20%	26.32%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의 수주 증가와 마진 개선으로 주력사업인 전선사업부가 회복되었고,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전망. 특히 기술력과 검증이 요구되는 제품에서의 선전이 장기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임 광케이블도 통신서비스의 진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제품을 선점하고, 해외 법인을 확대하여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파라다이스 A034230	15,900원	16,800원	17,000원	5.66%	1.19%	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7월 드롭액은 YoY 35% 가량 증가했고 홀드율은 12% 초반대로 파악. 홀드율이 평균치에 비교해서 높지 않지만 작년 3분기 홀드율이 11.9%로 낮았기 때문에 드롭액 성장 이상의 매출 성장 기대 컴프비 지출이 다소 보수적이었으나 경쟁 강도가 낮아지면서 방문 고객과 매출은 증가. 이러한 추세는 3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수익성 개선도 기대 					
오스텍임플란트 A048260	26,250원	24,250원	24,000원	-7.62%	-1.03%	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사 대비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후발 업체들이 난립했던 2009년~2010년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 점유율 48% 차지 다년간의 적자 감수 후 얻은 수출 및 해외 유통인프라(법인)확보로 해외법인 실적 턴어라운드 및 실적 호조가 기대 					

• 단순 방식은 추천종목 수익률의 단순 평균이며,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한 가중 평균임
 • 벤치마크는 해당기업 상장시장(KOSPI, KOSDAQ) 지수를 편입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사용. 기준은 전월 말 증가임

KOSPI 외국인 상위				KOSPI 기관 상위			
순매도(백만원)		순매수(백만원)		순매도(백만원)		순매수(백만원)	
KT	17,181	LG화학	42,581	두산중공업	36,674	금호석유	19,664
두산중공업	15,438	삼성전자	31,657	삼성전자	25,795	삼성화재	15,938
삼성화재	14,700	LG디스플레이	23,961	아시아나항공	14,940	CJ제일제당	14,478
기아차	10,855	엔씨소프트	15,450	POSCO	14,021	현대중공업	13,948
SK텔레콤	10,514	현대모비스	13,738	대림산업	11,755	KT	11,599
SK하이닉스	9,118	신한지주	13,003	LG디스플레이	8,984	한국전력	8,598
현대제철	8,265	삼성물산	9,171	두산중공업	8,178	락앤락	8,302
KODEX 인버스	7,818	호남석유	9,085	하나금융지주	7,975	한화케미칼	7,940
제일모직	7,065	현대건설	8,960	삼성엔지니어링	7,940	오리온	7,815
오리온	6,685	POSCO	8,425	삼성중공업	6,130	현대차	5,684

KOSDAQ 외국인 상위				KOSDAQ 기관 상위			
순매도(백만원)		순매수(백만원)		순매도(백만원)		순매수(백만원)	
서울반도체	3,811	에스엠	1,124	골프존	1,989	게임빌	4,964
파라다이스	1,950	비아트론	1,061	성광벤드	1,703	서울반도체	3,171
게임빌	1,846	동국산업	780	에스엠	1,680	다음	2,945
OCI머티리얼즈	1,653	메디톡스	743	AP시스템	1,565	에스맥	2,297
셀트리온	1,327	솔브레인	658	평화정공	1,245	웰크론한텍	2,295
실리콘웍스	1,007	뷰웍스	647	테라세미콘	1,167	뷰웍스	2,066
슈프리마	984	이엘케이	627	CJ오쇼핑	1,149	제닉	1,909
와이지엔터테인먼	927	CJ프레시웨이	617	유진기업	999	바이오랜드	1,888
제이엔케이히터	912	네패스	562	나노스	993	와이지엔터테인먼	1,838
성우하이텍	827	하이록코리아	513	태웅	982	파라다이스	1,708

외국인 연속 순매수				기관 연속 순매수			
KOSPI		KOSDAQ		KOSPI		KOSDAQ	
LG디스플레이	21일	성도이엔지	16일	S&T중공업	12일	아트라스BX	31일
삼성생명	17일	SBS콘텐츠허브	14일	빙그레	12일	넥스트아이	24일
태경화학	15일	태광	12일	LG	9일	서울반도체	9일
NI스틸	14일	이엘케이	12일	현대중공업	8일	슈프리마	7일
플무원홀딩스	14일	이엔에프테크놀	12일	신세계인터내셔널	7일	로엔	6일

대차거래 잔고율 상위				신용잔고 비율 상위			
KOSPI		KOSDAQ		KOSPI		KOSDAQ	
OCI	37.0%	셀트리온	12.4%	광명전기	8.4%	웰크론한텍	9.3%
LG전자	25.4%	서울반도체	10.8%	동양철관	7.4%	iMBC	9.0%
한진해운	24.2%	크루셜텍	9.9%	노루페인트	7.3%	디지텍시스템	8.9%
두산인프라코어	21.2%	덕산하이메탈	9.4%	디피씨	7.3%	이미지스	8.8%
STX조선해양	13.6%	디지텍시스템	9.0%	국제약품	6.9%	아이컴포넌트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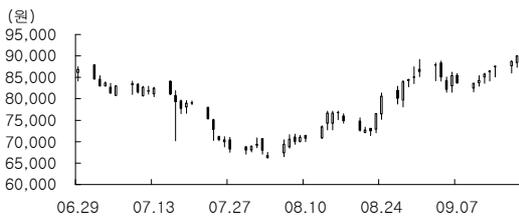
- 수급 데이터는 전 영업일 17시 기준
- !권리락, /액면분할(병합), \$투자유의, %강리(이상급등), &관리, @불성실공시, X거래정지
- 상기 종목은 추천의 목적이 아니며 단순 투자 참고용임

신세계인터내셔(031430) - 기관 7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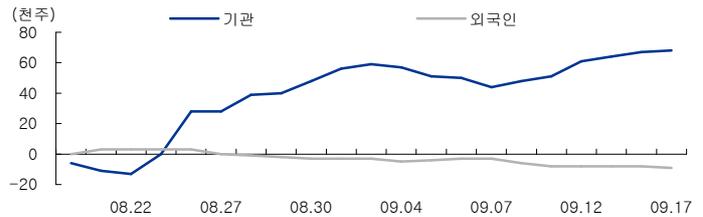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IFRS(개별)	K-IFRS(개별)	K-IFRS(개별)	K-IFRS(개별)
매출액	4,390	5,807	7,923	8,296
조정영업이익	285	392	532	486
영업이익률	6.5%	6.8%	6.7%	5.9%
당기순이익	249	335	462	440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6,426	PER	15.1	14.6
증가	90,000	PBR	2.3	1.6

Comment - 소비트렌드 변화의 수혜(현대證)

60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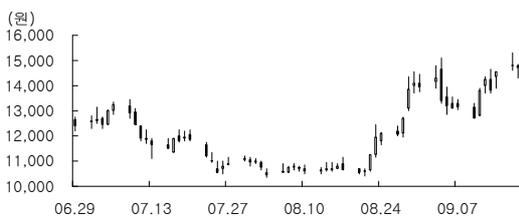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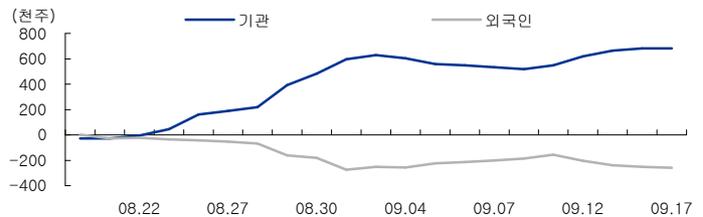
로엔(016170) - 기관 6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GAAP(개별)	K-IFRS(개별)	K-IFRS(개별)	K-IFRS(개별)
매출액	1,014	1,390	1,672	1,890
영업이익	64	70	266	290
영업이익률	6.3%	5.0%	15.9%	15.3%
당기순이익	45	108	214	240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3,743	PER	15.7	15.6
증가	14,800	PBR	3.1	-

60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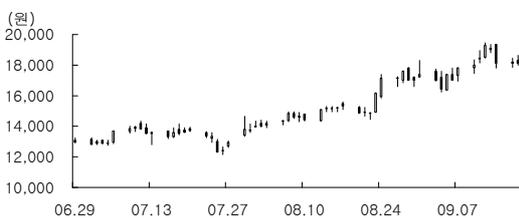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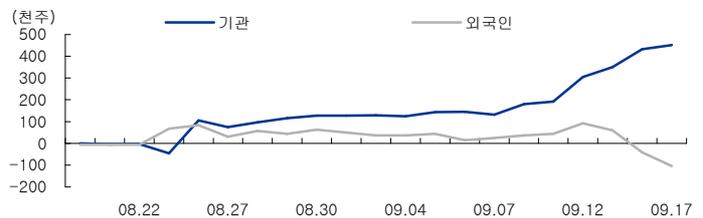
슈프리마(094840) - 기관 7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GAAP(개별)	K-IFRS(별도)	K-IFRS(별도)	K-IFRS(별도)
매출액	287	342	417	594
조정영업이익	106	86	56	185
영업이익률	36.9%	25.1%	13.4%	31.1%
당기순이익	102	98	62	177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2,665	PER	29.7	15.1
증가	18,100	PBR	1.8	2.2

60일 주가추이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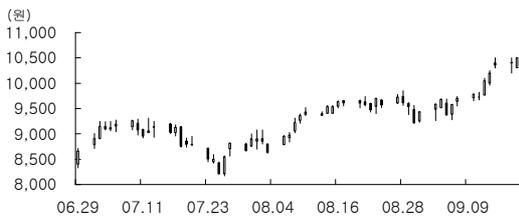


• 조정영업이익: GAAP방식으로 산출한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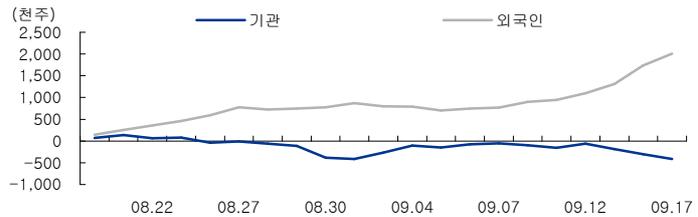
SK네트웍스(001740)		- 외국인 9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GAAP(연결)	K-IFRS(연결)	K-IFRS(연결)	K-IFRS(연결)
매출액		220,492	241,615	275,356	288,479
조정영업이익		3,489	2,691	3,588	3,416
영업이익률		1.6%	1.1%	1.3%	1.2%
당기순이익(지배주주)		505	1,813	1,458	2,156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26,059	PER	17.2	12.1
증가		10,500	PBR	0.8	0.8

Comment - 스마트폰 판매 증가, 이제는 IM사업부가 이익을 주도(한국투자증권)

60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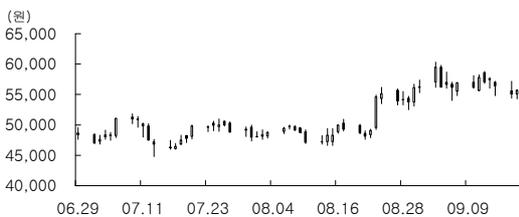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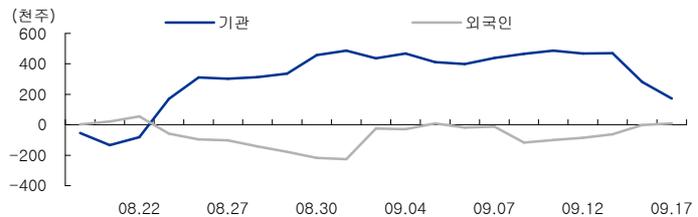


에스엠(041510)		- 외국인 6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GAAP(개별)	K-IFRS(별도)	K-IFRS(별도)	K-IFRS(별도)
매출액		618	864	1,099	1,818
조정영업이익		93	253	205	690
영업이익률		15.0%	29.3%	18.7%	38.0%
당기순이익		45	244	165	600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11,377	PER	45.5	19.0
증가		55,700	PBR	7.0	5.4

60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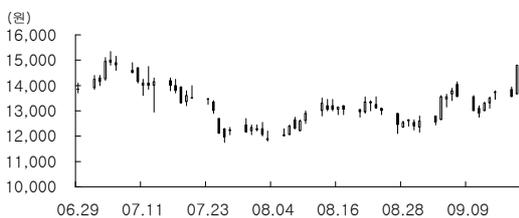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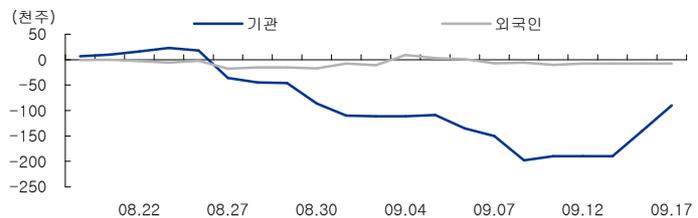


엘엠에스(073110)		- 외국인 5일 연속 순매수		* 예상 실적은 FNGuide 컨센서스	
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F
적용회계기준		K-GAAP(개별)	K-IFRS(별도)	K-IFRS(별도)	K-IFRS(별도)
매출액		687	724	876	989
조정영업이익		154	184	180	170
영업이익률		22.4%	25.4%	20.5%	17.2%
당기순이익		104	226	154	176
주가(억원, 원)		Valuation		2011	2012F
시가총액		1,294	PER	11.8	7.4
증가		14,800	PBR	2.1	1.2

60일 주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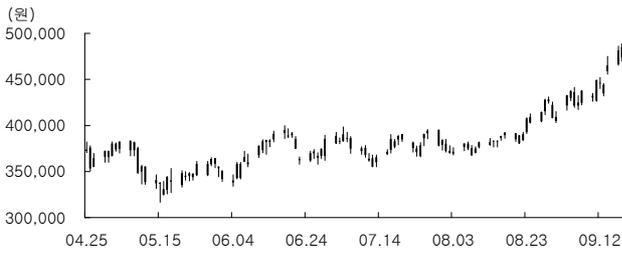


기관 / 외국인 수급 동향 (1개월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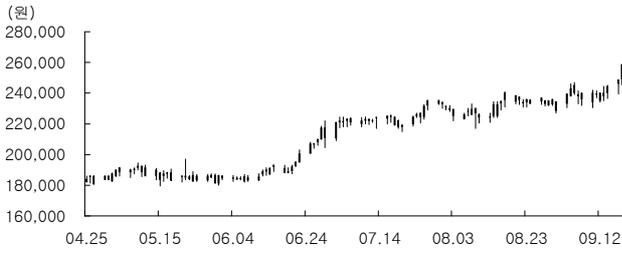


• 조정영업이익: GAAP방식으로 산출한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

52주 신고가 종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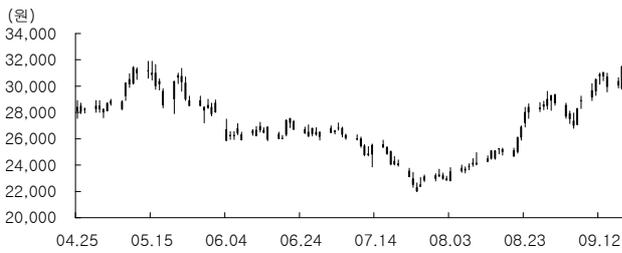


고려아연(010130)		
➢ 세계적인 비철금속 제련업체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91,519억원	485,000원	0.83%
Comment		
금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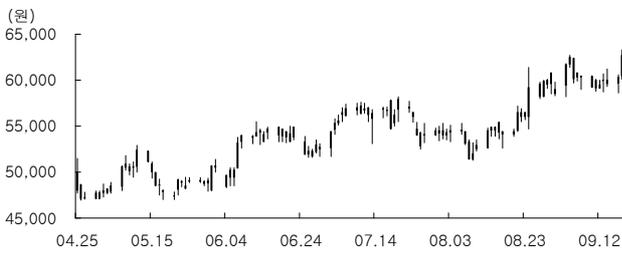


동원산업(006040)		
➢ 수산사업, 유통사업, 물류사업 등 영위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8,693억원	258,500원	4.02%
Comment		
참치어가 상승 수혜		

전고점 돌파 종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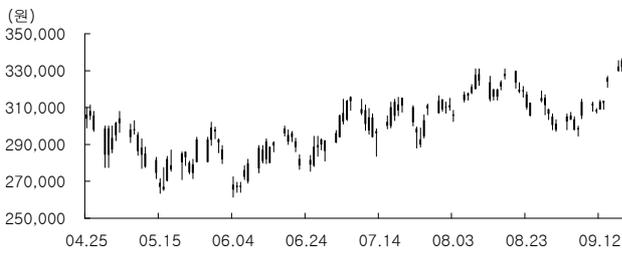


CJ E&M(130960)		
➢ 국내 최대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11,947억원	31,500원	4.83%
Comment		
글로벌 사업의 성장으로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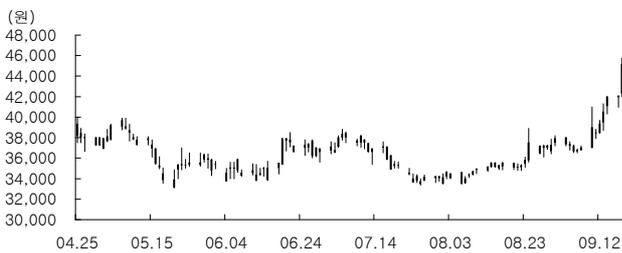


사조산업(007160)		
➢ 원양어업, 식품, 축산 등의 사업 영위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3,135억원	62,700원	3.98%
Comment		
신규선망선의 투입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		

200일선 돌파 종목군



LG화학(051910)		
➢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 기초제품 생산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222,339억원	335,500원	1.05%
Comment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실적개선 기대		



크레듀(067280)		
➢ 온라인 교육사업과 외국어평가사업 영위		
시가총액	종가	등락률
2,544억원	45,200원	7.62%
Comment		
외국어평가사업의 고성장세 지속		

• 상기 종목은 추천의 목적이 아니며 단순 투자 참고용임

국내외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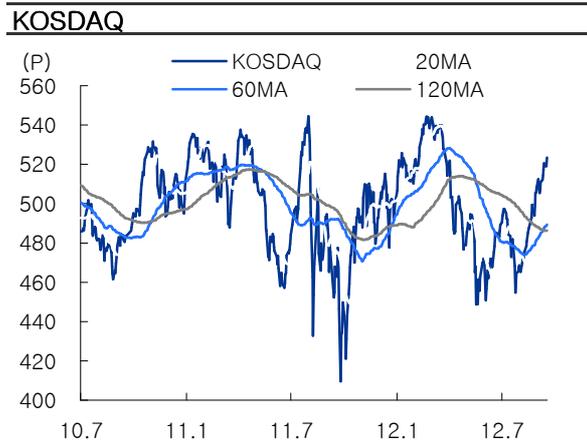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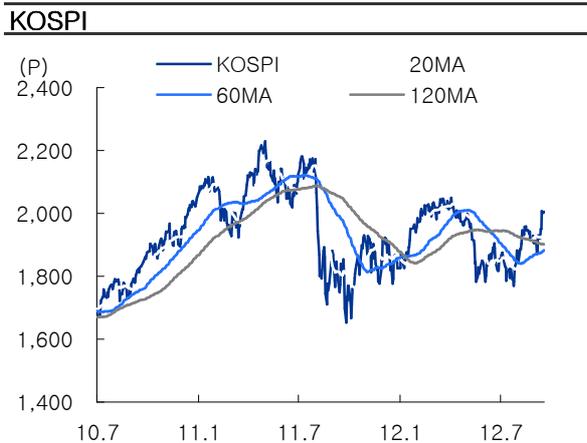
국내 증시 등락		(단위: P)			
	현재가(P)	등락률(%)	전일비(P)	52주 최고	52주 최저
KOSPI	2,004.96	0.13	2.61	2,057.28	1,644.11
KOSDAQ	523.52	0.87	4.52	546.15	408.35

증시 주변자금 동향		(단위: 조원, 백만원)			
	D-1	전일비	D-2	D-3	D-4
고객예탁금	18.45	0.55	17.90	17.84	17.75
신용융자	4.07	0.03	4.04	4.02	4.00
미수금	0.14	0.03	0.11	0.12	0.12
거래대금	7.92	(1.21)	9.13	12.40	9.13
KOSPI	5.11	(1.47)	6.58	9.19	6.10
KOSDAQ	2.81	0.26	2.55	3.21	3.03
주식형펀드	0.0	(98.2)	98.2	98.1	98.4
MMF	0.00	(76.37)	76.37	75.57	75.23

*주: 거래대금은 1거래일 전, 기타 지표는 2거래일 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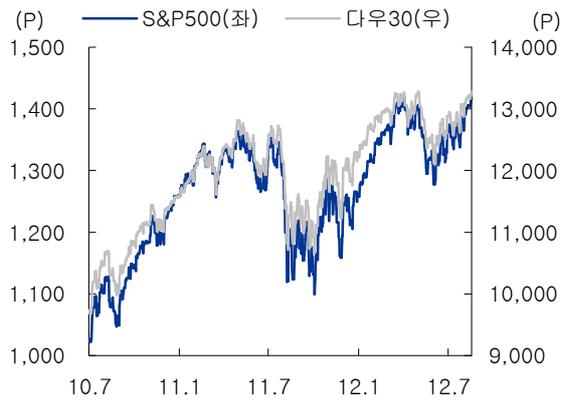
*주: 주식형 펀드는 국내외를 합한 설정액 기준

해외 주요 증시 등락		(단위: P)			
	현재가	등락률(%)	전일비(P)	52주 최고	52주 최저
S&P500	1,459.32	(0.13)	(1.87)	1,474.51	1,074.77
다우30	13,564.64	0.09	11.54	13,653.24	10,404.49
나스닥	3,177.80	(0.03)	(0.87)	3,195.67	2,298.89
다우 운송	5,083.00	(1.12)	(57.46)	5,390.11	3,950.66
필 반도체	400.78	(0.42)	(1.70)	444.96	322.24
영국	5,868.16	(0.43)	(25.36)	5,989.07	4,868.60
프랑스	3,512.69	(1.15)	(41.00)	3,600.48	2,693.21
독일	7,347.69	(0.76)	(56.00)	7,446.47	4,973.92
러시아	1,548.04	0.02	0.30	1,762.71	1,200.34
브라질	61,804.33	(0.00)	(1.65)	68,969.99	49,432.89
일본	9,123.77	(0.39)	(35.62)	10,255.15	8,135.79
중국	2,059.54	(0.91)	(18.96)	2,536.78	2,029.05
대만	7,734.26	(0.36)	(27.96)	8,170.72	6,609.11
인도	18,496.01	(0.25)	(46.30)	18,715.03	15,135.86



국내외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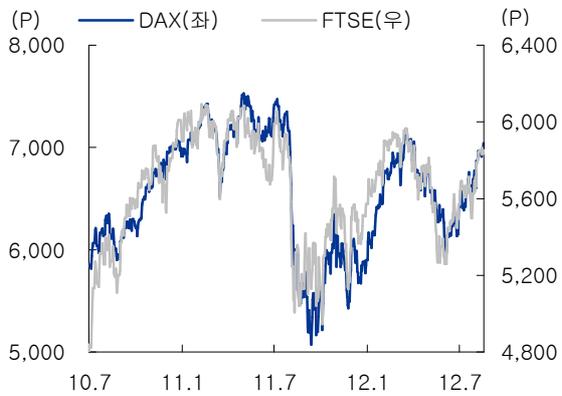
S&P500과 다우30



나스닥과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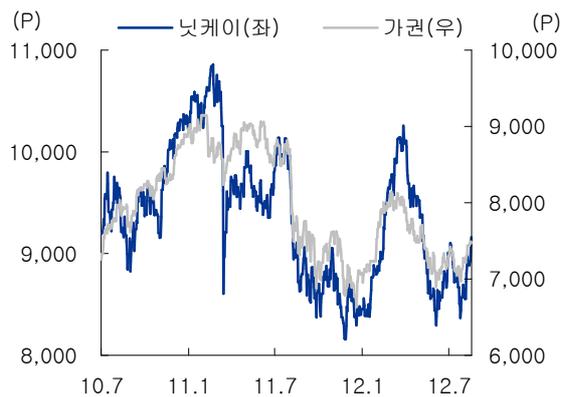
독일 DAX와 영국 FT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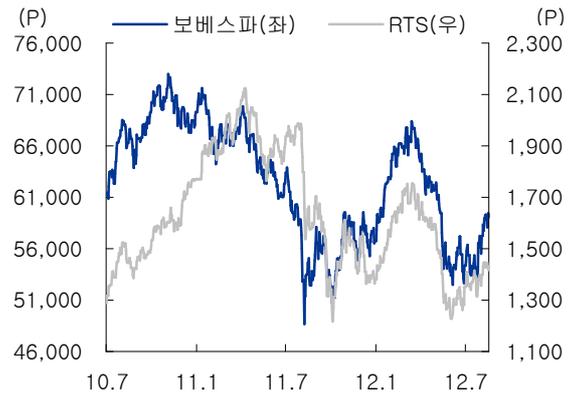
홍콩 H와 중국 상해종합



일본 NIKKEI와 대만 가권



브라질 보베스파와 러시아 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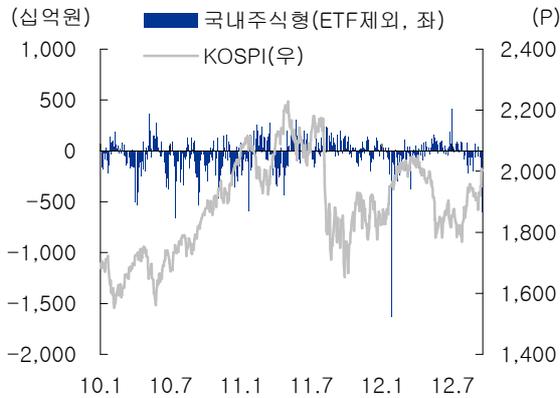


Fund F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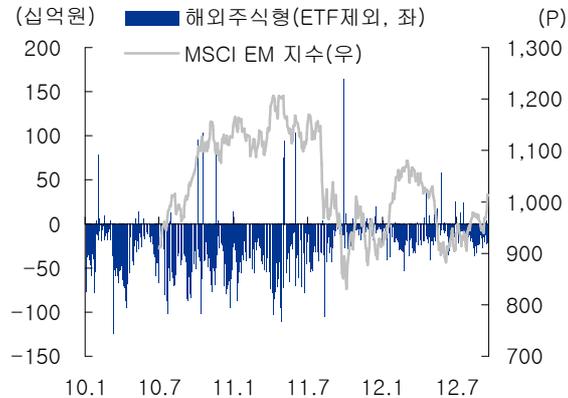
	국내	해외	국내ex ETF	해외exETF
09/17	(727.8)	13.3	(597.1)	13.3
09/14	(143.9)	(21.3)	(121.6)	(21.3)
09/13	(210.6)	(22.0)	(169.2)	(22.0)
09/12	(48.4)	3.3	(33.0)	3.3
09/11	(47.9)	1.4	(21.8)	1.4
9월누적	(1,647.4)	(109.1)	(1,035.7)	(109.1)
2012년누적	(3,305.7)	(2,389.0)	(5,154.1)	(2,394.6)

	9/17잔고	전일대비	9월 누적	12년누적
주식	97,447.1	(771.8)	(1,825.3)	(6,753.8)
국내	69,489.6	(776.1)	(1,652.6)	(3,192.7)
해외	27,957.5	4.3	(172.7)	(3,561.1)
혼합주식	10,717.0	(7.4)	(79.9)	(1,257.2)
혼합채권	18,739.4	(6.5)	418.5	513.9
채권	44,206.1	191.2	(3,550.2)	(637.5)
합계	171,109.6	(594.5)	(5,036.9)	(8,134.7)
단기금융	75,690.7	(679.0)	2,193.8	22,564.0
파생상품	30,549.5	(183.6)	3,870.3	7,621.8
부동산	18,694.2	13.8	73.7	2,324.1
실물	0.0	0.0	0.0	0.0
재간접	7,527.2	8.6	182.8	0.1
특별자산	22,073.9	(1.9)	91.9	2,758.0
PEF	2,475.6	0.0	0.0	(76.3)
합계	328,120.6	(1,436.6)	1,375.5	27,056.9

국내주식형펀드 순증



해외주식형펀드 순증



국내주식형 액티브 펀드와 ETF 자금추이



국내주식형펀드 자산 편입비



파생동향

주요 지수선물 지표

	종가	등락(P)	등락률(%)	거래량
KOSPI200	264.25	0.28	0.11	70,284
근월물	266.20	0.25	0.09	151,126
차근월물	266.20	0.25	0.09	151,126
야간선물	266.00	(0.20)	(0.08)	23,348
(단위: 조원, 계약)	거래대금	선현배율	미결제약정	미결제증감
K200F	20.1	6.26	95,498	1,595

주요 지수옵션 지표

	종가	등락(P)	거래량	미결제약정	
Call	OTM(275.0)	1.20	0.07	204,570	34,663
	OTM(272.5)	1.76	0.11	108,615	16,623
	OTM(270.0)	2.45	0.08	126,984	23,055
	OTM(267.5)	3.35	0.05	24,190	9,207
	ATM(265.0)	4.50	0.05	12,729	9,865
	ITM(262.5)	5.95	0.10	6,928	8,452
Put	ITM(267.5)	5.80	(0.30)	2,942	1,850
	ATM(265.0)	4.50	(0.25)	8,753	4,362
	OTM(262.5)	3.40	(0.15)	7,332	4,336
	OTM(260.0)	2.62	(0.16)	72,203	7,332
	OTM(257.5)	1.90	(0.16)	72,920	8,866
	OTM(255.0)	1.38	(0.13)	73,993	13,378

프로그램 관련 동향

(단위: 십억원)	D-1	D-2	D-3	D-4	D-5
차익	117.0	(72.7)	454.1	54.6	425.6
비차익	28.5	(15.1)	793.0	(46.4)	107.0
합계	145.5	(87.8)	1,247.1	8.2	532.7
			장중평균	시장	이론
베이스스			2.05	1.95	1.98
제1스프레드			(0.49)	(0.85)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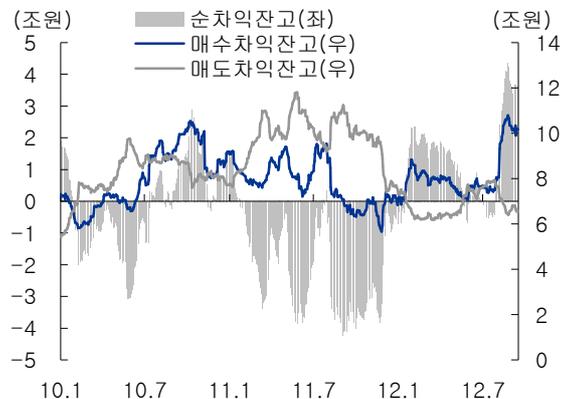
주체별 선물 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
전일 선물 순매수	2,082	(904)	(832)
누적 선물 순매수	(38,306)	16,818	12,896
베이스스 상관관계	0.22	(0.19)	(0.08)

변동성 추이



순차익잔고



채권시장 동향

국내 주요 금리 동향

	현재가	등락	1개월 등락	1년 등락
통안채 1년	2.86	(0.02)	(0.08)	(0.57)
통안채 2년	2.88	(0.03)	(0.08)	(0.62)
CD	3.14	(0.01)	(0.07)	(0.44)
국고채 3년	2.86	(0.04)	(0.07)	(0.54)
국고채 5년	2.94	(0.03)	(0.10)	(0.54)
회사채 AA- 3년물	3.31	(0.04)	(0.04)	(0.99)
회사채 BBB- 3년물	8.76	(0.04)	(0.03)	(1.37)
CRS 1년	2.08	(0.01)	(0.20)	0.97
IRS 1년	2.92	(0.00)	(0.05)	(0.58)

투자자별 동향

(단위: 십억원,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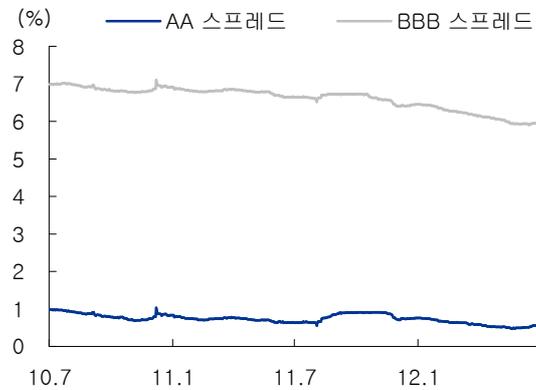
장외채권 순매수	외국인	증권선물	은행	자산운용	보험
09/18	(117.8)	0.0	(284.2)	(264.7)	0.1
09/17	151.0	0.0	391.0	213.3	694.6
09/14	97.7	0.0	531.9	14.1	256.0
09/13	228.9	0.0	1,051.1	378.6	652.2
09/12	263.9	0.0	(198.0)	332.8	496.2

국채선물 순매수	외국인	증권선물	은행	자산운용	보험
09/18	2,540	(3,501)	4,236	(506)	(412)
09/17	(456)	(5,474)	4,583	(117)	31
09/14	4,829	(2,770)	(397)	(1,118)	(43)
09/13	(18,350)	19,425	(66)	(2,259)	238
09/12	(8,508)	12,115	(7,694)	2,783	902

국고채 3년 금리와 CD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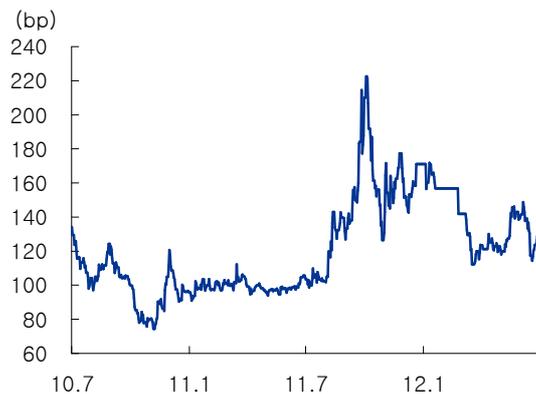
국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내외금리차 & 외환스왑레이트 1년물



한국 CDS 스프레드



해외 환율 금리 동향

주요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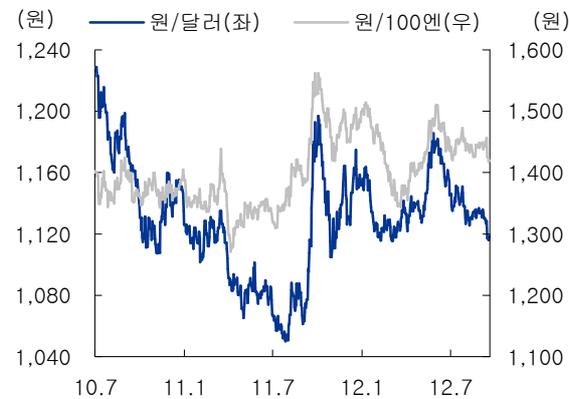
원/달러 NDF O/N	1,118.40	1,118.4	(서울환시 마감가)
원/달러 NDF 1M	1,119.78		

	현재가	등락	1개월 등락	1년 등락
원/달러	1,118.40	2.43	(17.15)	(18.67)
원/100엔	1,419.77	0.76	(9.94)	(65.02)
엔/달러	78.77	(0.05)	(0.66)	2.19
아시아통화지수	116.69	0.04	1.48	0.29
달러지수	79.25	0.24	(3.35)	2.65
달러/유로	1.3045	(0.0003)	0.0699	(0.0641)
달러/파운드	1.6244	0.0000	0.0532	0.0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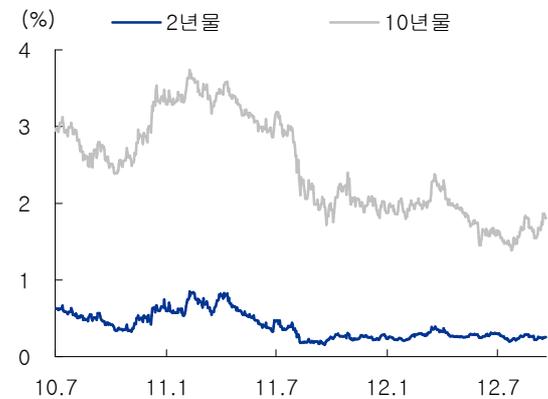
해외 주요 금리 동향

	현재가	등락	1개월 등락	1년 등락
미 국채 2Y	0.254	0.000	(0.032)	0.089
미 국채 10Y	1.808	(0.033)	(0.002)	(0.240)
LIBOR 3M	0.379	(0.002)	(0.056)	0.027
미 회사채 AA 10Y	2.934	0.057	0.129	(1.381)
미 은행채 AA 10Y	2.945	(0.051)	(0.370)	(1.364)
미 회사채 BBB 10Y	3.597	(0.024)	0.012	(0.506)
미 은행채 BBB 10Y	4.279	(0.091)	(0.232)	(0.861)
모기지 고정금리 30Y	3.520	0.000	(0.160)	(0.660)
TED SPREAD	0.282	(0.007)	(0.086)	(0.069)
EMBI+ SPREAD	274.53	3.94	(26.09)	(83.36)

원/달러와 원/100엔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미국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TED 스프레드와 EMBI+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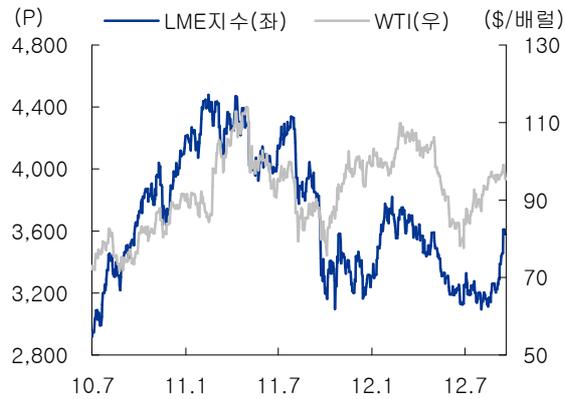


원자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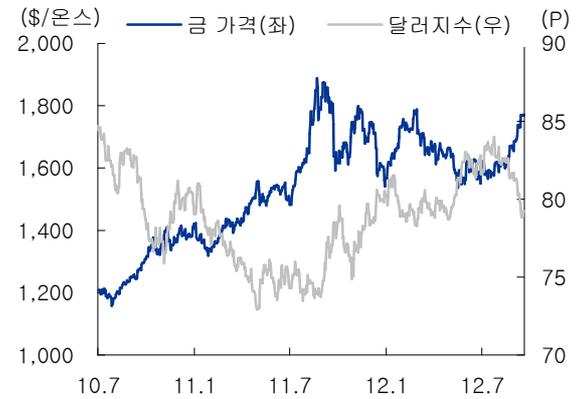
주요 원자재 동향

	현재가	등락(%)	52주 최고	52주 최저
RJ/CRB	311.56	(0.92)	332.71	266.78
WTI	95.60	0.33	110.55	74.95
Natural Gas	2.78	0.22	3.98	1.90
Coal	52.22	(0.68)	75.78	52.22
Gold	1,772.00	0.19	1,830.60	1,523.90
LME지수	3,580.30	(0.79)	3,820.40	3,094.80
Copper	8,301.00	(0.94)	8,765.00	6,635.00
Wheat	867.00	0.41	947.25	567.75
BDI	697.00	5.13	2,173.00	647.00

WTI와 LME지수



금과 달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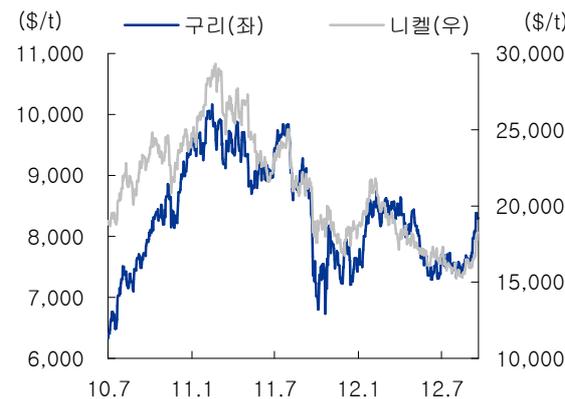
BDI와 CRB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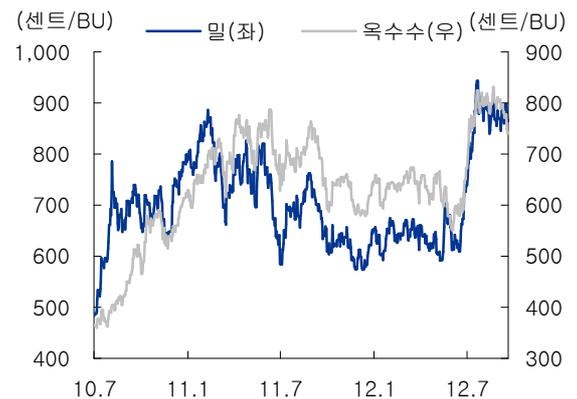
석탄과 천연가스 가격



구리와 니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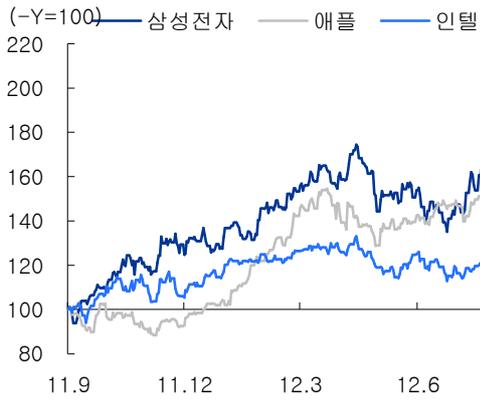


밀과 옥수수 가격



Global Peer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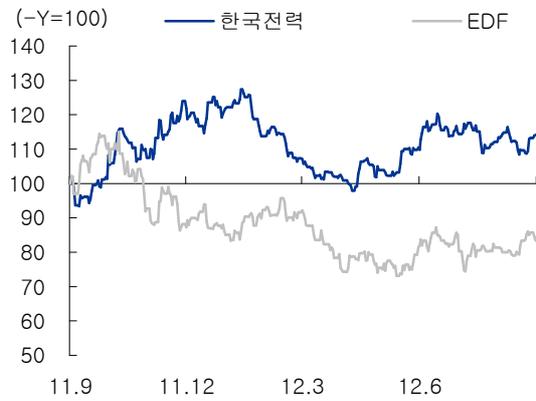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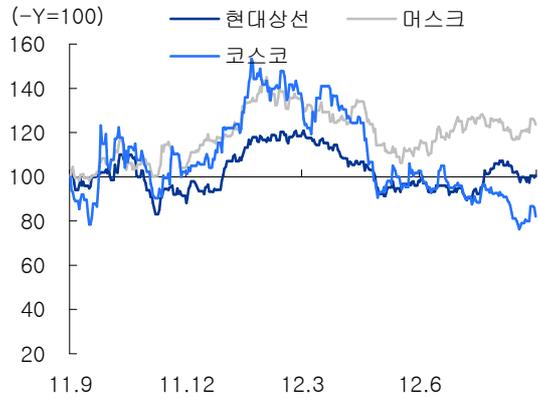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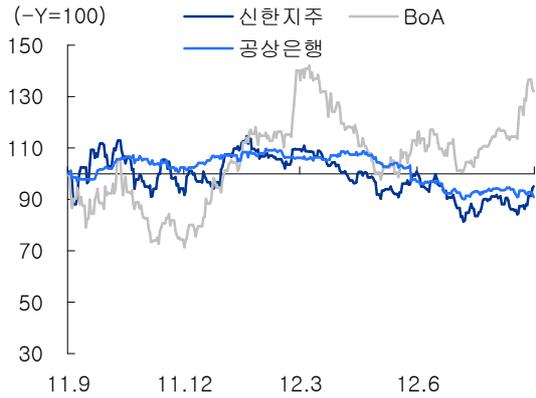
유틸리티



해운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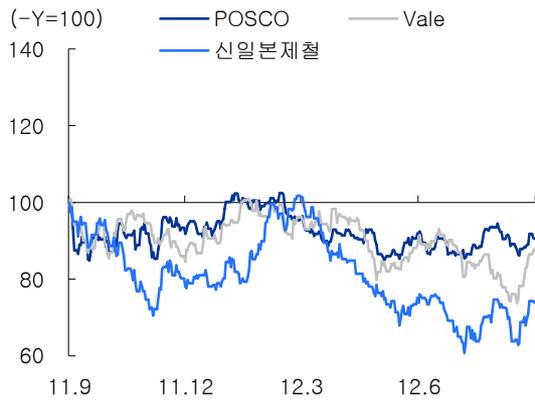


증권



Global Peer Analysis

철강



기계



화학



에너지



통신



반도체



주요 일정

Mon	Tue	Wed	Thu	Fri
3 한국 8월 소비자물가(1.2%,1.5%) 핵심 소비자물가 (1.3%,1.2%) 유럽 8월 PMI제조업(45.1,45.3) 중국 1일 발표 8월 제조업 PMI(49.2,50.1) 3일 발표 8월 비제조업 PMI(56.3,55.6) 8월 HSBC 제조업 PMI(47.6,49.3)	4 미국 8월 ISM제조업(49.6,49.8) ISM구매물가(54.0,39.5)	5 미국 8월 총차량판매 (14.46M,14.05M) 국내차량판매 (11.54M,11.00M) 유럽 8월 PMI종합(46.3,46.6) PMI서비스업(47.2,47.5) 7월 소매판매(-0.2%,0.1%) 중국 8월 HSBC서비스 PMI(52.0,53.1)	6 한국 2분기 GDP(2.3%,2.4%) 미국 8월 ADP취업자변동 (201K,173K) 8월 ISM비제조업(53.7,52.6) 유럽 2분기 GDP(-0.5%,-0.4%) 9월 ECB통화정책회의 (0.75%,0.75%)	7 미국 8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변동 (96K,163K) 민간부분고용자수변동 (103K,172K) 실업률(8.1%,8.3%)
10 한국 8월 생산자물가(0.3%,-0.1%) -9일 발표 중국지표- 8월 소비자물가(2.0%,1.8%) 8월 생산자물가(-3.5%,-2.9%) 8월 산업생산(8.9%,9.2%) 8월 고정자산투자 (20.2%,20.4%) 8월 소매판매(13.2%,13.1%) -10일 발표 중국지표- 8월 수출(2.7%,1.0%) 8월 수입(-2.6%,4.7%)	11 미국 8월 NFIB소기업 낙관지수 (92.9,91.2) 7월 무역수지(-\$42.0B,- \$42.9B)	12 한국 8월 실업률(3.1%,3.1%) 7월 통화공급M2(0.9%,0.4%) 유럽 7월 산업생산(0.6%,-0.6%)	13 한국 9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3.00%,3.00%) 미국 8월 생산자물가(1.7%,0.3%) 9월 FOMC(0.25%,0.25%)	14 미국 8월 소비자물가(0.6%,0.0%) 핵심 소비자물가 (0.1%,0.1%) 8월 소매판매(0.9%,0.8%) 자동차외 소매판매 (0.8%,0.8%) 8월 산업생산(-1.2%,0.6%) 설비가동률(78.2%,79.2%)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 (79.2,74.3) 유럽 8월 소비자물가(2.6%, 2.6%) 핵심 소비자물가 (1.5%,1.7%)
17 미국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0.41,-5.85)	18 미국 2분기 경상수지 (-117.4B,-\$133.6B) 9월 NABH주택시장지수 (40,37) 유럽 9월 ZEW조사치(-3.8,-21.2)	19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746K) 8월 건축허가건수(-,811K) 8월 기존주택매매(-,4.47M)	20 미국 9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7.1) 8월 경기선행지수(-,0.4%) 유럽 9월 PMI종합 예비치(-,46.3) PMI제조업 예비치(-,45.1) PMI서비스 예비치(-,47.2) 9월 소비자자기대지수(-,-24.6)	21
24	25 한국 9월 소비자자기대(-.99) 미국 7월 케이스-윌러 주택가격지수 (-,142.21) 9월 컴퓨터소프트 소비자자기대 (-,60.6) 9월 리차몬드 제조업지수 (-,-9)	26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327K)	27 한국 10월 BSI제조업(-,75) BSI비제조업(-,69) 미국 8월 내구재주문(-,4.2%) 운송재외 내구재주문 (-,-0.6%) 8월 미결주택매매(-,2.4%) 유럽 9월 소비자자기대(-,-) 9월 경제기대(-,86.1)	28 한국 8월 경상수지(-,\$6103.8M) 상품수지(-,\$5316M) 8월 산업생산(-,0.3%) 미국 8월 개인소득(-,0.3%) 8월 PCE디플레이터(-,0.0%) PCE근원(-,0.0%) 9월 시카고PMI(-,53.0) 중국 9월 HSBC제조업PMI(-,47.6)

주: 음영으로 표시된 항목은 당일이며 지난 데이터는 (실제치, 이전치) 순, 향후 발표 예정인 데이터는 (컨센서스, 이전치) 순. *는 발표일 미정 항목

자료: Bloomberg, 인포맥스, IBK투자증권